

R-25. 건강인에서 Dextranase 함유 구강 세정액의 치태 억제 및 치은염 예방 효과

송우상*, 김영준,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질환의 원인으로는 세균성 치태와 세균대사 산물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치은연하 치태 세균이 주로 관여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태 관리가 필수적이다. 치솔질만으로는 치태의 완전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치태 관리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치태 기능을 가진 세정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강인에게 6개월 동안 세정제(실험1군 : Dextranase 함유 세정제 사용군, 실험2군 : Chlorhexidine 사용군, 대조군 : Buffer 사용군), 일반 치약, 연모로 된 성인용 칫솔(3개월 간격)을 제공하여 1일 2회 치솔질을 시행하도록 하고 치솔질후 세정제 20cc를 30초간 함수하게 하여 어느 정도의 치태 축적 및 치은 염증 억제 효과, 치면 착색을 포함한 부작용을 갖는지를 비교 평가하고자 시행하였다. 치태 축적도는 치태 축적의 면적을 평가하는 Quigley-Hein 치태 지수 및 치태 심도 지수를, 치은의 염증 상태는 Silness & Loe의 치은염 지수 및 치은염 심도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치태 축적도 및 치은염 지수는 Dextranase군이 6개월후에 다른 두 군에 비해 가장 적게 수치가 증가하였고, 각 기간별로 치태 지수는 1개월후에 세 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는 완만한 증가율을 보였다. 3개월과 6개월후에는 대조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3개월후에는 Dextranase군이 가장 적게 증가하였고 6개월후에는 Chlorhexidine군이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두 군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치은염 지수의 경우 세 군 모두 실험 기간동안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6개월후에는 대조군, Chlorhexidine군, Dextranase군 순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각 치아 부위별로는 세 군 모두 6개월후에 구치부가 전치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면 착색도는 6개월후에 Chlorhexidine군, Dextranase군, 대조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내 부작용은 Chlorhexidine군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 혀의 침착물, 미각 이상 및 상피 탈락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Dextranase 양치에 의한 치태 축적 및 치은 염증 억제 효과가 가장 큼을 나타내었으며, Chlorhexidine 양치에 비해 치면 착색을 포함한 구강 점막에 대한 부작용이 적어 임상적으로 사용시 치주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